

종합 · 애설

2000년 6월 16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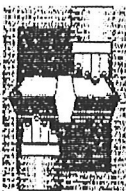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경제협력

분석과 전망

南北~영국 '뉴 실크로드' 구상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첫 사업으로 '뉴 실크로드' 구상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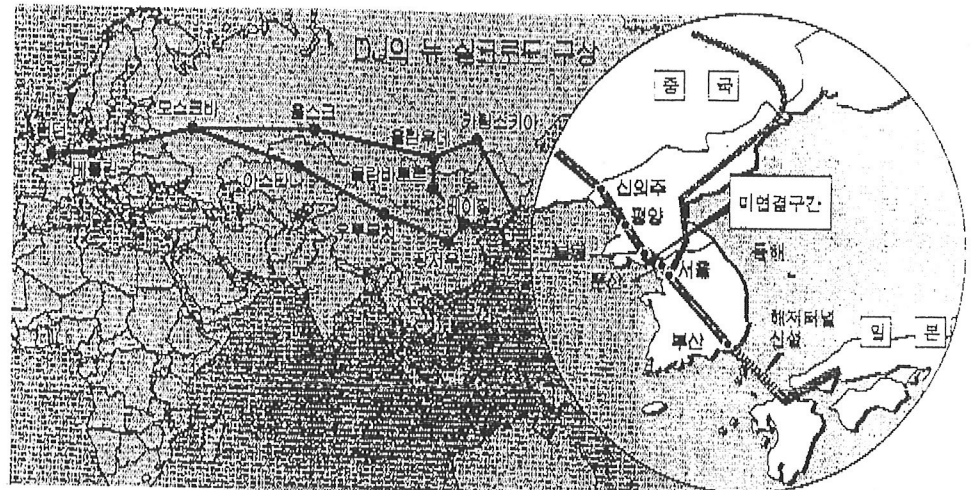
김 대통령은 15일 서울공항에서 가진 '대국민 노

고'에서 남북간 끊어진 철도철 연결해 일본~한국~북한~시베리아~유럽~영국을 잇는 유라시아 횡단 운송망(총연장 1만2천km)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남북한이 뉴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서서 '동북아시아 물류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해보자는 원대한 구상이다.

김 대통령은 "우리 기차가 왜 먼 길을 못가는가"라며 "끊어진 경의선 25km만 이으면 런던까지 달속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일본에서 출발한 기차가 해저터널을 통해 남한과 북한을 지나 유럽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 구상이 구체화되면 '수송비는 30%가 줄어 들고 수송기간도 크게 줄어들어 남북한이 경제발전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간 철도 연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구상에 대해 충분한 설득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도 일찍부터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계망 구축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일식 전 주석은 지난 1994년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직후 헬기에서 노동당 중앙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와 러시아 영국의 철도를 연결할 경우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이



金대통령 '유라시아 횡단철도망' 제시 한반도, 동북아 물류핵심기지로 육성

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발표가 나온 시점부터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한 물류중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평양을 방문한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한측과 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뉴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마무리돼 있다"며 "시베리아 철도와 남북연계 방안이 확정되면 경의선 경원선 등 남북을 잇는 3개 간선 복원계획과 동시에 측각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이미 지난 3월말 서울에서 전나다 파데예프 TSR운임협의회의장(전 철도부 장관), 게오르기 플로라야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등 러시아 당국자들과 한국의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TSR와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구상이 '남

북경협 1호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북한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체류형 사업'이 아니라 기차가 화물과 여객을 싣고 지나가는 '통과형 사업'이어서 당장 북한 체제에 큰 여파를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는 기차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땔 수 있다는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화 등 민간기업들도 러시아 TSR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대통령의 '뉴 실크로드 구상'은 빠르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

2000年6月16日 韓国経済新聞

南北頂上会談 6. 15 共同宣言 経済協力 分析と展望

南北～英国 “ニューシルクロード” 構想

金大統領 “ユーラシア横断鉄道網” を提示、 韓半島 “東北アジアの物流核心” に育成

金大中大統領が南北経済協力の最初の事業として“ニューシルクロード構想”を打ち出した。

金大統領は15日、ソウル空港で行った“対国民報告”のなかで南北韓の断ち切られた鉄道を結んで、日本～韓国～北韓～シベリア～ヨーロッパ～イギリスを結ぶユーラシア横断輸送網（総延長1万2千Km）構築計画を具体的に提示した。金大統領は“新たなシルクロード”という用語を使用した。南北韓がニューシルクロードの中心にたつて“東北アジア物流の核心基地”としての役割を果たそうという遠大な構想である。

金大統領は“われわれの汽車が何故ロンドンまで行けないのか”とし、“分断した京義線25Kmだけを繋げばロンドンまで一気に行ける”と語った。金大統領は日本から出発した汽車が海底トンネルを通り南韓と北韓を抜けてヨーロッパまで行くことは難しいことではないとし、この構想が具体化すれば“輸送費は30%も削減され輸送期間も大きく短縮され南北韓が経済繁栄を享受できるための契機になるもの”と強調した。

金大統領は今回の頂上会談で金正一国防委員長と南北韓鉄道連結案を論議しながら、そのような構想について十分な説明をしたものと伝えている。

北韓も早くからシベリア横断鉄道（TSR）との連携網構築に大きな関心を持ってき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金日成前主席は去る1994年南北頂上会談に合意した直後、ベルギーに労働党中央委員長と接見した場で韓半島とロシア、中国の鉄道を連結する場合莫大な利益が生じであろう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こともあった。外交家ではプーチン大統領の北韓訪問の発表があった時点から北韓がプーチン大統領にシベリア横断鉄道（TSR）を通じての物流仲介などに対して具体的な案を提示すると見られるとの観測がでていた。去る2月には平壤を訪問したイゴリ・イバノフ、ロシア外務長官も北韓側とこの計画を論議し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建設交通部の高官関係者は“ニューシルクロード構想”についての妥当性調査はすでに完了している”とし、“シベリア鉄道と南北連携案が確定すれば京義線、京元線など南北を結ぶ3本の幹線の復元計画と同時に即刻推進が可能である”と語った。

韓国とロシア政府はすでに去る3月末ソウルからケンナディカデエフ TSR 運営協議会議長（前鉄道部長官）、ケオルキフルロヤ外交部、亜州国副局長などロシア当局者達と韓国の交通開発研究院関係者達が参席するなかで TSR と南北韓の鉄道を結ぶ問題をとりあげ具体的な検討作業を行った。

財経経部の関係者は“この構想が南北の経済協力の第1号事業”として急浮上しているのは北韓地域内で繰り広げられている“滞留型事業”ではなく汽車が貨物と旅客を乗せて通り過ぎて行く“通過型事業”として当面北韓の体制に大きな余波をうけないため”としており、“北韓とロシアは汽車が通過する過程で通過料が得られるということが長所”と説明した。韓化など民間企業もロシアの TSR 関係者と会って具体的な事業協力案を論議しており、今回の頂上会談を契機に金大統領の“ニューシルクロード構想”は早い時期に具体化するものと見られる。